

지금 이 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_ pighaedlab

TIME NOW

2022. 7
제번째



이은우
별거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규환

작은 씨앗들_2

석민정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_3

오종원

예술을 좋아했던 십여년을 추억하다

신규&게스트

이 안

삼촌이 무당이어서 정말 미안해

이채연

친구와 고양이

Pighead Lab



앞 표지 :

2022년 6월 2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주년 특별행사로 진행된 <헝가리의 밤> 프로그램.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헝가리 와인 문화를 들으며 헝가리 와인 5종을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진행 내내 이탈자가 없었다.

뒷 표지 :

행사 중 제공된 다과(헝가리 전통 빵 포함)
사진_오종원

지금 이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불행 _ pighaedlab

TIME NOW

이번 달 <지금 이시각>에는 두 명의 필진을 새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시각>의 운영 환경 상 어떤 계약이나 장기적인 약속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과, 그렇게 누적된 데이터가 언젠가 세상과 나 자신에게 어떤 계기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이해해주시고,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변이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시각>이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동시대에 대한 자기고찰, 그리고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방하는 것이며 이에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이야기라도 환영한다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복잡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살고자 합니다. 새로 참여해주신 두 분의 필진도 그러한 지점에서 각자의 개성이 담긴 이야기를 보내주셨으며, 그래서 이번 달의 <지금 이시각>은 더욱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예술을 좋아했던 십여년을 추억하다

오종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상투적이지만 내가 시각예술계에서 첫 전시로 등장했던 시절은 꽤나 좋은 시기의 한참이었다. 당시 신진 작가 입장으로 전시 기회를 갖고 싶어 조급해 하다 보면 혹자는 “젊은 작가들에게 얼마나 기회가 많은데”라며 말하곤 하였다. 그 말은 확실히 맞는 말이었다. 지금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자체는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강렬했다.

밀레니엄 이후 한국 예술계에는 ‘젊음에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단다. 물론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은 전통적 미덕이기도 하겠지만 이는 과거와 조금 다르다고 본다. 제도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 일종의 신드롬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몇몇 이들은 한국 현대미술이 변화한 시점을 쌈지 레지던시와 그 작가들의 등장으로 거론하곤 하는데, 이 역시 밀레니엄 이후 이후의 시기이다. 예술, 그것도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브랜딩으로 보여 지기 좋았고, 어떤 뚜렷한 비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슈를 받는 미술행사들은 젊은 예술인들 위주였다. 내가 막 미대를 벗어나던 무렵에는 이미 그런 이슈들이(그만큼 충돌들도 포함하며) 한참 등장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동안 뭔가 어렵게만 느껴지던 예술의 세계가 특이하고 생소함으로 무장한 젊은이들로 가득한 클럽 스테이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훌륭한 (또한 젊은) 선지자들이 ‘일상적이지 않은 예술을 통해 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들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당시 미대라는 환경은 대체로 보수적인 도제방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꼭 미술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변화의 시기라는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선배라는 사람들 말만 고분고분 들으며 “예술가는 엉덩이 두께로 승부하는 것”이라는 얘기만 듣다, 막상 세상에 나오니 진작 총명한 이들은 각자의 새로운 방식으로 관심들을 받고 있었다. 당시에는 SNS라는 개념도, 유튜브가 지금처럼 일상의 일부인 시대도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또 하나. 아마 YBA 역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전기톱으로 젓소를 가르고 상어를 토막내서 전시했다는 데미안 허스트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한국에도 전달되면서 한동안 영국 유학이 인기를 끌기도 했었다. 컨템포러리 아트, 기이하고 신묘하면서도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등장하면서, 한국사회내 예술이 스스로 고수하던 경계와 문턱이 낮아지고 깨지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조선일보가 아시아프라는 것을 열어서 대학생 그림도 팔아준다고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올해의 작가상이 리뉴얼 되어 유명한 영화배우가 등장했단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던 평론가들이 마치 스타처럼 팬덤을 이끌기도 하였다. 일반인들,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술을 하는 것에 갑자기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미술시장에서 2008~9년에 찾아온 베블의 등장도 이러한 징조였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입학하였지만 먼저 졸업했던 여학우들이 너도 나도 갤러리에서 개인전 한다던 시기였고 그 여파가 한동안은 갔었다. 이때 까지만 해도 갤러리에 잘 보이면 전속이 되네 어찌네 하면서 어떤 성공의 지표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남아있었다. 그만큼 양아치 갤러리들도 많아서 아래저래 돈 떼이고 그림 떼였다라는 이들도 종종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중소 규모의 대안공간, 레지던시들은 상당히 신선한 상쾌함을 주었다. 더 이상 갤러리 마음에 들기 위한 억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좋고, 앞서 이야기한 어떤 컨템포러리스러운 일들을 공간과 레지던시들은 수용해주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리적이지 않은 곳들이기에 영리적이지 못한 것들을 수용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기존의 예술이 성역처럼 굴었던 것을 놀이터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2012년 아시아프에 출품했던 작업물 (검은색 액자 두 점)



성북구의 오뉴월, 문래동의 정다방, 보안여관, 그 밖에 다양한 공간들에서 예술가들이 모이고는 하였다. 대안공간 루프 같은 1세대 공간들은 어느정도 기성이 되어 이 상향으로 존재하였고, 그 뒤를 잇는 2세대(혹은 1.5세대) 플랫폼들이 상당히 왕성하게 젊은 작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꼭 전시가 아니어도 좋았다. 다양한 미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임과 파티가 등장했는데(밤새 시끌벅적하게 달리는 전시 오프닝 뒷풀이 문화도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대표적으로 문래동의 부흥을 연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작가들이 홍대와 인사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발굴하고자 하였다.(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홍대와 인사동도 한때는 대안적인 지역이었을 것이다.)

더 이상 인사동 모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머리를 맞대기만 하여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짜내고는 하여서 전통적인 전시 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벤트로 표출되고는 하였다. 지금처럼 서울문화재단 등에서 프로젝트를 왕성히 지원하던 시기도 아니었음에도, 독립기획자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돌이켜보면 대체로 폐포먼스,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공동목표로의 활동이나 운동 등 현장예술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이러한 활동들 역시 수용되는 분위기가 있기에 가능했으리라. 전반적으로 어떤 목표지향이기보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아니었을까 회상해본다.

자, 이제 앞선 문장들을 과거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러한 ‘좋았던 시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살아남기 힘든 시기를 맞은 만큼 지금의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몇몇 이들이 2010년 리먼 사태부터 거론하던 것처럼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천천히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문화예술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지점에서 예술계는 보통 한 박자 늦게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다. 천천히 젖어 든다고 해야 할까. 생필품처럼 직접적으로 자원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지 경기불황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상황들이 체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앙까지 닥치며 완전한 사실로 자리잡고 만다.

먼저 직접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그 많았던 많은 ‘공간’들의 축소이다. 사설 갤러리는 물론 문화공간, 레지던시들, 중소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영리 사업은 영리 사업대로, 비영리 사업은 비영리대로 경기난에 부딪친다. 혹자는 “지금도 충분히 공간들은 많지 않아?” 물어볼 수 있겠고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나, 그때의 공간들과 지금의 공간들은 많이 다른 지점이 있다고 본다. 뭐 다양하겠지만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중소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의 위축을 거론해볼 수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장점이라 함은 어떤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뻔한 말이지만 여행의 그것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작가들과 함께 창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말 큰 자산이 된다. 특히나 신진작가일 때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작가의 성장이란 데이터의 개념보다 감각적인 영역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한 인간이 내면의 변화를 쥐기 위해서는 환경의 영향은 필수적인 것일테다. 따지고 보면 레지던시가 얼마나 있었고 그게 얼마나 많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런 곳들이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대안공간들의 교류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세대 공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술가들이 모이고 서로 이야기를 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현장예술의 사라짐도 거론해볼 수 있다. 자칫 잘못 말하면 끝도 없는 이야기지만, 결국엔 다양한 환경적 원인들로 인해 이 역시 보기 드문 광경이 되었다. 나의 경우 현장 예술을 생각하면 바로 사람들과 함께 악자지껄 어울리는 것을 떠올리곤 하는데, 대체로 현장성 있는 활동은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중점은 커뮤니티다. 나도 이러한 활동에 관심이 많아 그나마 얼마전까지 DRP라는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몰아 닥치며 이러한 활동들은 쉽게 엄두를 낼 수 없게 되었다. 특히나 시각 예술의 경우 공연예술과 달리 단방향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즉각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었다. 퀄리티는 제각각 이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신진 작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었던 청년 작가 공모가 줄어들면서, 또 예술가들이 모였던 곳에 벌어진 젠트리피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전반적으로 기승전 경제의 문제라고 부르면 될 일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술가,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상실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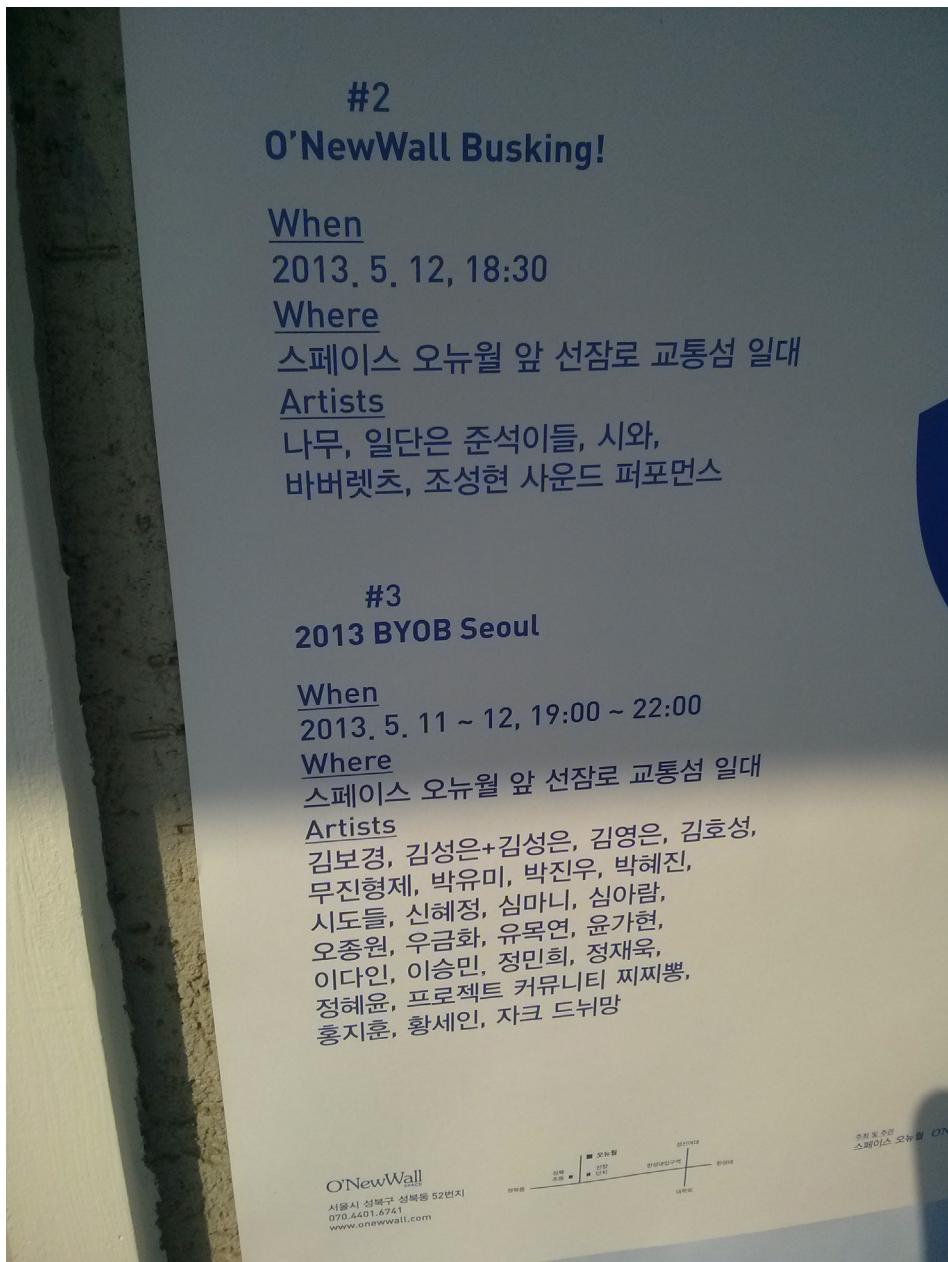
근래 전시 및 행사를 감상하면서 어떤 무미건조함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근래의 문화행사들이 어떤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가령 내가 근래에 어떤 방식으로든 접수하게 되는 신진작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는 하는데, 특정 방식의 회화작가가 늘어나는 느낌이다. 대체로 얇아지고 가벼우며, 탄력이 있지만 깊다는 느낌은 못 받는. 나는 그런 작업들을 양산형 작업이라고 혼자 부르고는 하였다. 그러한 작업들이 보이는 분위기는 단순히 작가가 성의가 없다거나 하는 문제와는 다르다. 그것은 생존의 작업일 것이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 맞추어진 변화일 것이다. 언젠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원래 이 글은 ‘지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한참이나 적어 나가고 있었다. 문제라고 생각되는 지점도 하염없이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상들 역시 동시대의 반증이며 또 다른 변화를 위한 한 때라는 생각도 해보기에 차마 잘못됨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그러하였고 예

술계는 결국 각자 살아남은 이들의 집합체가 아닌가. 확실히 힘든 시기의 한참이고 과거의 그 시끌벅적한 오프닝 뒤풀이 자리가 그리워진다.

덧, 초고를 마치고 바람을 쇠려 나와 SNS를 열었더니 “게임계에 몰아 닥친 겨울”이라는 칼럼이 보였다. 훑어보고 나니 경기불황으로 인한 업계 불황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그만큼 근래 게임들에 참신함이 줄어드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나왔던 게임들이 참 참신했다.

2013년 성북구에 위치한 오뉴월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참여작가 각자가 빔 프로젝터를 가져와 동네 이 곳 저 곳에서 자신의 동영상 작품을 상영하는 전시였다.





별거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 은 우

그림 그리는 사람 /
본업과 부업 사이 어딘가에
서 표류 중

STOP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날, 생일을 입력하였다. 나는 인스타그램에 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자는 이상한 마음에 엉뚱한 생년월일(특히 연도)을 입력했다.

기억이 안나지만 계정을 만들 때 이런 기본 정보는 기입했을텐데 별안간 왜 또 귀찮은 일을 한 번 더 하게 하는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유는 그것 딱 하나였다. 아뿔싸… 인스타그램에 나이제한이 있었다. 만 몇세 이상이어야 계정 복구가 가능했고, 신분증을 인스타그램 측으로 30일 이내에 보내서 확인받지 않으면 계정이 사라진단다.

여기서부터 극도의 짜증이 밀려왔다. 신분증은 별도 보관하다가 삭제된다고 뭘 믿고 보내냐!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고 싶지 않았다.

무려 세 번의 제출 시도를 했다.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면허 번호 일부를 가려서 보내 보았다. 기다렸다. …하지만 계정은 풀리지 않았다. 달리 보면 큰 의미 담지 않아도 되는건데, 그냥 사진 한 번 보내면 되는건데 왜 난 6일밖에 기한이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재시도하지 않고 있을까.

내키지 않는 일을 한다는건 정말 불편한 일이다. 이런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게 꺼림칙한 것이다. 그리고는 혼자 온갖 생각을 한다. 그냥 계정을 확 없애버릴까? 어차피 자주 보지도 않는 거. 근데 이미 SNS 아니면 주변 소식을 듣는 것도 늦고 남들이 뭘 하는지도 모를텐데. 에이, 어차피 내가 SNS 교류라는걸 많이 했나, 하는 사람들하고만 했지. 근데 정말 한 건 맞을까?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었을까? 근데 내 계정을 사라지게 두는건 아쉬워. 나름의 정보 공유 창들인데. 이게 뭐라고 요동침의 정도가 꽤 일정한 내 마음을 불현듯 폭발시키거나 불꽃튀게 혹은 따뜻하게 하는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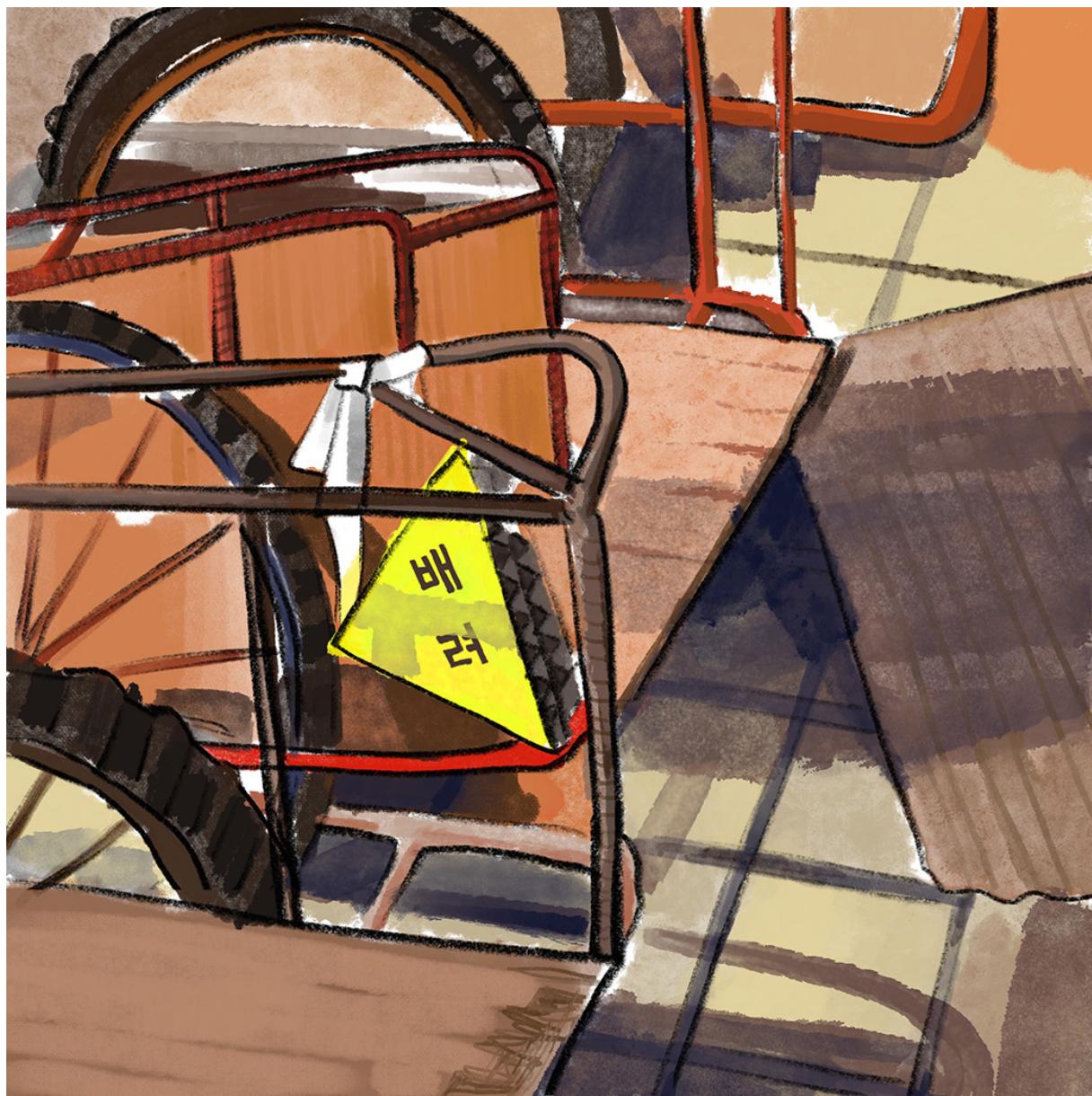
내일은 다시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는다.

4일 남은 시점에 드디어 복구가 되었다. 막상 목표를 달성하니까 무지하게 허무하고 별거 아닌 일 같다.

같은 실수를, 나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말해준 것들이 다시 의심의 행동으로, 눈초리로 온다.

아주 불쾌하다. 일터란 이런 불쾌한 일 투성이인 곳이다.

잠시만요



그날의 밥



신규&게스트



삼촌이 무당이어서 정말 미안해

이 안

원형아티스트 /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젤

잘나가는 만신

혜수야! 삼촌이 무당이어서 정말 미안해, 정말로.

왜 그런거 있잖아, 너거 친구 정화 앞에서 “야 삼촌이 무당인데 개 잘 맞춰. 근데 우리 삼촌이 그런는데, 너가 너무 외로운아이니, 너보고 잘해주라고 하더라, 그래서 너에게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어.”

너는 솔직히 너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마치 너가 나인듯 삼촌이 무당이라는 말을 쑥 빼고 위에 말처럼 정화를 위로했다고 너의 엄마한테 말했다며. 그래서 삼촌이 미안한 거야 혜수야. 너가 먼가 마음에 꺼림직한데 이유도 모르겠고 거짓 아닌 거짓말을 한게, 살면서 수고스러움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부터 너가 그 수고스러움을 감당해야 하는게 미안할 뿐야. 삼촌이 무당이 아닌 일을 하면 어땠을까 싶더라고.

엄마는 법조인이고 아버지는 중국의 어느 명문대를 졸업했고, 너 입에 달고 다니던 데, 너는 왜 너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까지 울면서,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친구에게 삼촌 직업은 물론 삼촌이라는 존재까지 사라지게 했고 혹시 그것을 알게되면 삼촌 마음 아플까봐 애써 내 앞에서 안 그런척 연기까지, 왜 그래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울었다는 말에 많이 속상했어. 혜수야. 참 그지 같다 그지?

근데 있잖니, 혜수야.

삼촌 안 섭섭해. 단지 나는 정말 너에게 미안할 뿐이야. 너는 도무지 왜 뭐라 설명할 수도 없게 삼촌을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너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눈치 보며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근데 있잖니, 혜수야.

삼촌도 스스로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삼촌이 너거 엄마 앞에서의 독백이 절절하게 다가 와서 이렇게 미안한거야. 그래도 좀 살았다는 나도 모르겠는 거, 너는 어찌 알까 싶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미안하다.

아마도 우리는 ‘무당’이라는 단어에 불혀진 수많은 은유와 그 단어 안에 들어간 수 없는 편견 때문에 무당, 만신, 이런 단어를 말하는 것이 이유도 모르는 죄책감을 들게 만든 그것들과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나는 너에게 미안해 하고, 너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있잖니, 그래도 삼촌을 자랑하고 싶어서, 삼촌은 플로리스트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 야 삼촌을 사랑해 줘서 고마워 혜수야. 삼촌 상처 받을까봐 걱정되서 그렇게 엄마한테 말했다는 말을 듣고, 삼촌이 빵터졌어!

우선 삼촌은 삼촌이 무당이든 만신이든 빌어주는 자든 무속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기꺼이 이십년 다되어서야 받아 들였거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 정말 나는 무당이기만 할까? 나는 만신 혹은 빌어주는 자이기만 할까? 그러니까 삼촌은 혜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일거야.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나는 “직업인으로써 존재해야 함”을 강요받는 이시대에, 나는 무엇으로 존재 해야 하는 거니? 넌 학생이라는 위치를 너 스스로도 동의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치자, 하지만 혜수야, 그 학생의 시간의 다리를 건너서면 너도 삼촌과 같은 고민을 할지 몰라. 그래서 이 야기를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 볼까?

삼촌은 십년 넘게 꽃을 다뤘어. 처음에는 신에게 받치는 가장 큰 공양은 ‘화영연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불꽃같이 찬란한 한 순간을 신에게 받치는 거지, 인류는 동시대와 전 시대를 넘나들고 동양과 서양을 넘어 들어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건 “꽃으로 신을 찬양”한다는 거야. 여느 시대의 그들처럼, 삼촌도 자기 존재의 존재함을 과시하는 순간에 만개하는 그 존재를 그러니까 꽃을, 신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에, 인류의 누군가가 그래왔듯이 현화를 시작했어,

어느 순간부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식물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더 깊게 가다 보니 일본풍을 바탕으로한 동양 꽃꽂이를 넘어, 공식이 정해져 있는 꽃 꽂는 방식의 인공적인 미가 강한 미국식 꽃꽂이를 넘어, 동유럽식, 동남아식, 서유럽식,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꽃’을 공양하고 싶었어. 그래서 공부했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가끔 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나는 분별없는 꽃의 그 찰나의 순간을 존중하며, 그들의 최고의 빛남과 죽음을 동시에 신에게 받치며, 어떤 존재도 어느 스타일의 꽃 디자인을 벗어나 ‘이 행위’를 짹한 햅볕 한줌 대하는 정도의 기쁨으로 마주하길 바랐어.

너도 알다시피 삼촌 인스타에는 꽃사진으로 도배되었잖니. 그 찰니를 남기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조금만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또 포토 폴리오처럼 만든 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수많은 플로리스가 친구가 되어 있더라.

혜수야 삼촌이 질문 하나 할게.. 자 그럼 삼촌은 플로리스트니?

너도 알다시피 삼촌은 치마를 입잖아. 정확히 말해서 철릭리하고 불리우는 옷이기도 해. 철릭은 말 그대로 고려시대 때 천에다 철실을 끼어서 단단하게 만들어 하체를 둘러 메었어 마치 치마처럼. 그것은 상대방의 무기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옷이었어. 하지만 근래에 소위 무속인들은 남자 무속인이 치마를 입는다 하여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치마를 두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들은 설명 없는 그 모습에 그들만의 상상으로 소위 무속인들이 제의의 행위를 할 때 입는 옷을 여자 신이 와서 그렇구나 하고 해석하기도 하더라. 하지만 소위 무속인들이 입는 그 철릭이라는 치마는 ‘여성신의 상징’ 이 아니란다.

무당들은 치마도 입더라 하며 어떤 남자 소리꾼은 여성 복장을 하고 나와서 그 젠더의 경계성과 모호함을 작품으로 승화하기도 하더라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건 “무당이 치마를 입는다더라” 넘어 전쟁에서 죽어 간 이들을 추모하는 행위와 동시에, 그 철로된 실을 꼬매 아랫단을 두르고 그 무엇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선 그 “용기”를 재현의 도구이기도 한데, 세월 지나며 지금은 치마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여자들이 입었던 옷으로 박제시키고 (사실 그 용기를 낸 사람이 남자만 그랬겠니?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철릭이라는 치마와 비슷한 그 옷을 온몸에 둘렀을지도 모르잖아) 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자 무당만의 전유물로 만들고서 남자 무당인 나는, 여성성을 강요받아야 했어.

그래서 삼촌은 전통이라는 것은 재현의 산물이라는 전제아래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 신복이라는 것을 말야. 옷을 디자인 하고 만들며 정말 가슴 깊숙이 느꼈던건 그 옛날 어디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디서 미단옷을 입을 수 있었으며, 백정이라는 신분과 함께 가장 천한 계급의 위치에서 과연 지금의 무속인들이 전통이라고 말하며 입고 행하는 제의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 특정 계층의 재인이나, 그들만을 위한 무속인인 아닌, 개화기를 넘어 조선 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까지의 의복을 연구하고 옷을 재현하며 내가 진행하는 굿에서 만큼은 ‘다른 시각에서의 전통’ 을 찾아 옷을 만들고 또 만들고 유물에서 나온 옷들을 참고하면서 실제로 적용시키는 작업을 거치고 있단다, 실제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해,

혜수야, 그럼 삼촌은 패션 디자이너니? 혹은 복식 연구자일까? 그뿐만이 아니야 혜수야. 세계요리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고 떡은 연구하며 국내 대회에서 여러 번을

입상했어. 전통음식이라고 배웠지만 마치 떡이 한국에만 있다고 가르친 선생님을 부정하고서, 아시아 문화 전역에 펼쳐진 떡문화와 제의 음식을 공부 하고 재현하고 또 실상에서 식을 직접 만들고 먹고 이것을 굿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기도 하는 나, 그럼 나는 음식연구가니? 아님 요리사니?

그림을 그려서 팔기도 했으니 그럼 나는 페인터야? 아님 글을 써서 돈을 벌기도 했으니 난 작가네? 염명할. 시나리오를 써서 입봉했으니 그럼 난 시나리오 작가야? 연극극본도 썼으니 난 그럼 극작가야? 더복잡하네. 그럼 만가의 형식으로 늘 노래를 부르고 기록해서 또 정말 악보를 내었다면 삼촌은 뭐야, 가수야? 작사작곡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심지어? 지랄같네 진짜.

나도 도무지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예수와 삼촌인 내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죄책감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또 서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렇게 된 이유는 “삼촌은 삼촌으로써,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완벽하게 타인의 시각으로써 재단 되었을 뿐 삼촌이 무엇이라 불리우길 원하는지 너도 물어 보지 않았고 나도 스스로 물어보지 않았으며, 그 수많은 타자들도 우리들도 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단다.”



‘당신은 누구이고 무엇이며 어떻게 불리우고 싶습니까.’ 누구하나 던지지 않는 질문에 어쩌면 나도 스스로 누군에게 질문 받고 싶었지만 아무도 안물어본다고 나도 은근슬쩍 지나가서 이렇게 헤수가 속상해 하는 일이 생긴 것 같아. 미안하다 헤수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 속상해 하지 말자, 이제 삼촌을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내가 먼저 나를 정의할게. 아무도 물어 보는 이 없이 그저 보이는 대로 재단 당하느니, 내가 먼저 정의할거야. 나는 나니까. 삼촌은 만신을 모시는 기자(빌어주는자)이자, 그래 줄여서 만신이라고 불리어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럼 만신이자, 당신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는 화두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당신들을 괴롭히며 현재와 과거를 잇는 것들을 재현하고 창작하는 원형문화예술인(Archetype artist)이라고 불러줘 헤수야.

이제 누구에게도 미안해 하지 말고, 울지도 말며 차별과 차이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삼촌에게 말해줘. 고맙다. 예수 덕분에 삼촌도 삼촌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네. 다음에도 헤수가 궁금해 하는 건 다 말해 주마. 우리는 하나니까. 그지? 돌같이. 나무같이 흐르는 바람같이. 만신이자 원형예술가, 아티를 아티스트인 삼촌이 헤수가 오늘 따라 많이 보고싶네.



신규&게스트



친구와 고양이

이 채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킹’은 친구 B의 고양이이다.

친구B는 대학시절 내가 있을 곳이 없을 때, 혼자 살던 작은 자취방의 한쪽을 내어 준 친구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휴학을 했고, 같이 자취했다. 그 때 고양이 ‘킹’은 어쩌다 열떨결에 친구B에게 오게 되었다.

전라도와 경상도 끝에서 온 우리.(그다지 세련된 느낌의 학생은 아니라는 뜻) 원하던 서울의 팬찮은 대학에 다니게 된 것은 영광이었지만, 꿈꿔온 분홍빛 대학라이프는 아니였다. 가난하진 않지만 넉넉하지는 않아서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찌질함에 가까울 때도 간혹 있었다. 그런 찌질함도 어떤 때는 낭만적으로 느껴 지기도 했었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가 생각난다.

예술을 공부하러 먼 길 떠나 왔지만, 예술보다는 불확실한 인생에 대해 더 고민했던 그 때. 그 자취방. 고양이 ‘킹’은 그런 시절 친구에게 왔고, 그 시절의 일부분에 들어갔다. 나름대로 고단했던 20대의 우리를 ‘킹’은 고양이의 방식으로 위로 해주었다. 고민이 있어 시름 앓고 있으면 살짝쿵 다가와서 등을 슬슬 문질러 주었고, 새침하게 다가와 안겨 있기도 했다. 지친 마음이라는 식빵에 고양이 숨결 버터 크게 한 스푼을 올리고, 고양이 앞발 터치로 버터를 쳐발 하고는 그 식빵자체가 되어버리는 고양이가 상상된다.

‘킹’은 20대의 심볼 같은 존재였다.

나는 친구의 자취방에서 나왔고, 친구와 반려묘 ‘킹’은 쭉 같이 살다가 몇 해 전 ‘킹’은 하늘나라로 갔다. 킹의 장례식에서 진짜 청춘이 갔다는 느낌을 받았다. 친구의 인생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티티’는 친구J의 고양이이다.

친구J네 집에는 친구와 남편 그리고 고양이 ‘티티’가 산다. 가족 중 1인분? 아니 1묘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고양이이다. 찐반려묘 느낌이 난다.

나는 친구J가 자기중심이 확실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선을 그을 줄 아는 그런. 그런데 반려묘 ‘티티’와 함께 있는 친구는 조금 달라 보인다. 자기 중심보다는 다른 존재인 ‘티티’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이미지가 연상된다. 애정으로 연결된 느낌이다. 따스해 보인다. ㅎ 잘살기를

지금 이시각 2022. 7

2012년 고양이 '킹'과 2살 아들



2022년 고양이 '티티'와 12살 아들





작은 씨앗들_2

이 규 환
창작가

6_ 어둠의 근원

갈라진 틈새로 새하얀 손이 쑥하고 나왔다.
‘마음이 아파, 너희를 생각하면, 세상을 홀로 견뎌낼, 불쌍한 우리 아가.’
“너무 아파, 가슴에서 튀어나온 이건 뭐야.”

씨앗이가 살아온 12년간 처음 겪는 일이었다. 가슴이 터지는 아픔과 실제로 들었는지 혼동되는 엄마의 목소리로 혼란스러웠다. 대지가 진동하는 것인지 아픔에 몸부림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자신의 몸에서 새하얀 손과 미끈한 액체가 뿜어져 나온 것 조차도 믿기 어려웠다.

“축하해”

노란 씨앗이 하는 이야기는 온통 알 수 없는 말뿐이었지만, 알 것 같다고 씨앗이가 생각했다. 이해되지 않는 깨달음. 씨앗이는 이제 아이가 아니었다. 씨앗이의 손으로 대지를 딛고 일어나 몸을 짓누르는 모래를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고, 씨앗이의 기억이 아닌 누군가의 기억이 멋대로 흘러들어왔다.

“아니야 난, 난 못 해.”

씨앗이는 소리를 꽉 질렀다.

“난 안돼 무서워 못한다고, 내가 설령 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 오랫동안.”

씨앗이가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이런 빌어먹을 세상에 넣어놓고 떠난 엄마를 미워했다. 세상을 미워했고 자신은 굴러다니는 모래보다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자신마저 부정하고 난 후 생각은 멈췄고, 몸은 마비되어 음작달싹 할 수 없던 일들을 말이다.

“나는 쓸모없어 저 수많은 모래알 중에 고작 한 알일 뿐이잖아,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난 안될 거라고.”

노란 씨앗이 잠자코 씨앗이의 말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왜 모르겠는가, 누구나 시작은 작은 씨앗일 뿐인데. 스스로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같이 가자. 우린 가야만 해.”

“아니야 못해. 너 혼자 가!”

씨앗이가 손을 거둬들이며 소리쳤다.

“못 한다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난 그냥 흔한 둥근 모래 알갱이 중 하나라고, 내가 잘못된 씨앗이 된 건 전부.”

숨이 확 막힌다. 많은 생각이 밀려들어와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씨앗이가 봄에 모래 언덕과 본적 없는 모래 언덕. 씨앗이가 봄에 반짝이는 별 하늘과 본적 없는 별 하늘. 모래 지평선에 홀로 편 보랏빛 꽃 한송이. 씨앗이의 기억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정신 차리기 위해 정면을 노려봤다. 노란 씨앗의 모습은 파랗게 보이기도 빨갛게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내 검게 보였다.

“이제와서 무섭다고.”

씨앗이가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타인의 기억과 가슴에서 끓어 오르는 꽃 트위고 싶은 욕망을 털어막았다. 두꺼운 모래층을 뚫고 올라가, 마주하게 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혼절했다.

7_엄마의 꽃

먼 옛날 보라색 꽃잎을 가진 예쁜 꽃 한 송이가 사막 한가운데에 피어 있었다. 어떻게 피어난 것일까? 어쩌면 우연히 씨앗 한 알이 묻혀있었고, 우연히 지하수가 잠시 흘렀던 걸지도 모른다. 우연이 피워낸 사막의 꽃 한 송이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지지 않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글거리는 아지랑이 속에서 아무도 찾아 주는 이 없이, 말 걸어주는 이 없이 보라색 꽃은 힘을 다해 피어났다.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나 여기 살아있어. 누가 말을 걸어와 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날이 올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에게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모래산과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늘의 모래알과 더위에 지칠때면 언제나 찾아와 주는 바람이 있는 걸. 나는 행복해.”

“모래산아 안녕. 고마워 언제나 찾아와 주잖아? 오늘도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줘서 고마워. 언젠가 내가 더 많이 자라면 모래산 가득 꽃으로 채워서 너에게 그늘을 만

들어 주고 싶어. 그때는 내 인사를 받아 주지 않겠니? “
보라색 꽃은 잎사귀를 흔들며 인사를 했지만, 모래산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도
보라색 꽃은 행복했다.

“안녕 하늘의 별아, 외롭지 않게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언젠가 나도 하늘을 날아오
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의 곁에 기대어 있어줄 수 있잖아? 그때는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겠니? “

하늘의 별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도 보라색 꽃은 행복했다.

“바람아 안녕. 오늘도 뜨거운 별에 지친 나를 위해 찾아와 주었구나.”
보라색 꽃은 푸른색 잎을 매만지며 지나가는 바람을 느꼈다. 잎을 동그랗게 말아 바
람을 품에 안으며 인사를 했지만, 바람은 말없이 빠져나갔다.

같은 매일이 반복되어도 만물이 주는 고마움에 행복했다. 그 행복을 더 해주는 아이
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보라색 꽃이 머금고 있어야 할 수분을 모두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새벽에 맷히는 땅의 이슬을 잎사귀로 섬세하게 훔쳤다. 줄기에 맷힌 이
슬이 땅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빨아들였다. 모든 힘을 짜내어 남김없이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다. 보라색 꽃은 목이 말랐지만 아이들 생각에 참았다. 목
마름에 약해진 잎사귀를 하나둘 끊어 내면서 겪는 고통을 보라색 꽃은 아픔으로 느
끼지 않았다. 도리어 충만한 사랑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안녕 하늘의 별아 오늘은 내 인사를 받아 주지 않겠니? 이제 끝이 오는 것 같거
든.”

높게 뜬 별빛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 말을 걸었었
다. 적어도 오늘 만큼은 대답해 주기를 바랐다. 보라색 꽃이 씨앗에서 깨어나 오늘
날까지의 일들을 생각했다. 매일 웃으며 행복해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애써 외면
하고 있던 감정이 솟구쳐 올라왔다. 흘려서는 안 될 소중한 눈물을 추슬러 보지만
참아지지가 않았다.

“외롭구나.”

대답 없는 저 모래산아, 별아, 바람아, 고마워.
보라색 꽃이 걸어간 길을 따라 똑같이 걸어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이제 갈 때가 온 것 같아.”

씨앗주머니를 빼고는 말라버린 꽃 한 송이가 어렵게 입을 떼었다. 마르고 쉰소리가
나왔다.

“미안해, 불쌍한 우리 아가.”

보라색 꽃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바싹 말라버렸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은 모래산을 멀리 떠나보냈고, 별똥별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 모습은 마치 보라색 꽃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8_꿈의 끝에서

‘불쌍한 우리 아가. 미안해,’
씨앗이가 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에 깨어났다.
“아니야 엄마, 고마워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을 한순간, 씨앗이의 마음을 속박하던 저주가 풀렸다.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일까. 남을 미워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끝내 자신의 존재마저 미워하며 희망이 가득한 가능성을 저주로 바꿔버렸었다. 씨앗이는 여전히 세상이 무서웠지만, 작고 앙상한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엄마가 그러했듯이 씨앗이 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있잖아, 나는 엄마의 바람이 내가 살아가는 전부였어. 아니 그랬다고 생각해, 이 깊은 구덩이에 갇힌 순간부터. 내가 사랑했던 것들과 만나지 못하고부터 꽃을 피워야 한다는 말에 매달렸어. 이것이 엄마가 원한 것이었잖아? 그런데 아니었어.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참고 견디며 살아가기를 바랐다고 생각해. 꼭 꽃을 피우지 않더라도, 그것이 엄마의 바람.”

축축이 젖은 모래들 사이로 맑은 물 한 방울이 씨앗이의 벌어진 껍질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나의 엄마는 이 척박한 사막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사랑하셨고 고마워하셨어. 자신을 위해서도 멋지게 살아내셨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 지금의 너라면 할 수 있어.”

노란 씨앗이 혼절한 씨앗이의 옆을 지켜주었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노란 씨앗도 분명 본능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모래를 파 올라가려는 충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해일처럼 몰아붙이는 충동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애써 참았다. 뜨거운 마음은 단숨에 하늘까지 솟아오를 것만 같았다.

“노란 씨앗아, 고마워.”
노란 씨앗이 미소를 지었다.

9_ 미래를 향해

씨앗이의 작고 검은 몸에서 나오던 하얀 손은 점차 뿌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뿌리는 작은 가지를 치며 뻗어 나왔고, 작은 가지에서는 잔뿌리가 미세하게 나오려 하고 있었다. 모래를 굳세게 밟아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지지하여 위를 향해 뻗어 올라갔다. 뿌리가 하나 둘 바닥을 다져가는 깊이만큼 조금씩 용기로 변해갔다. 어느 새 씨앗이의 갈라진 몸에서 나온 줄기에는 앙다물어진 등근 잎이 돋았다.

“힘내, 이제 곤 이야.”

노란 씨앗이 외쳤다.

씨앗이는 둘둘 말려있는 작은 잎을 펼쳐 물에 젖은 모래 알갱이를 힘껏 들어 올렸다. 여린 줄기가 바들바들 떨렸고 마지막 힘을 내었다.

“올라왔어!”

씨앗이가 잎사귀에 묻은 흙탕물 한 방울을 털어내며 노란씨앗을 바라보았다.

노란씨앗도 씨앗이를 바라보았다. 이내 웃음을 터트렸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이지?”

“그래,. 그런데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노란씨앗이 하늘을 올려보다 정신을 빼앗겨 말을 잇지 못했다.

10_작은 씨앗들

씨앗이가 노란씨앗을 따라 12년 만에 하늘을 바라보았다. 끝을 알 수 없는 두텁고 검푸른 하늘에는 어릴 적 보았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안녕, 하늘의 별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마치 인사를 받아주듯이 별똥별 무리가, 긴 꼬리를 달고서 동에서 서쪽 하늘로 빛을 그으며 내려갔다.

“노란씨앗아 봐 별들이 인사를 받아줬어!”

신이 난 씨앗이가 남아 있는 말린 잎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때 엄마의 냄새가 사방에서 퍼지는 것을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바람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

아니 인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에 실린 강렬한 꽃향기에 씨앗이가 겪어보지 못 한 감각을 깨웠다. 모래 알갱이를 들어올려 힘을 다 한 줄기로 간신히 땅을 짚고 일으켜 세울 정도로, 달콤한 플로랄 향이 강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휘청거렸다. 세

찬 향이 한차례 지나간 후 이번에는 소리와 말들이 밀려들어와 씨앗이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

“마지막 나온 아이야.” “이번에는 누굴까?” “우리랑 같은 아이일까?” “누가 나왔어 봐봐.”

“누구세요?”

“무서워하지 마. 우린 너랑 같아.” “그래 무서워하지 마.” “힘내.” “깔깔깔 무서워하고 있어.” “뭐가 무서워서 그래.” “야! 놀리지 마.” “처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또 이상한 애 하나 나왔네.”

어둠에 익숙해 지지 않아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렴풋이 어두운 사막 땅이 마치 바닷물처럼 출렁거렸다. 씨앗이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잎사귀로 몸을 웅크렸다.

“모두 조용! 너희도 처음에는 다 똑같았어, 떡잎 시절을 기억하라고.”

굵은 목소리가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씨앗이에게 말을 건넸다.

“마지막으로 나온 아이야 무서워하지 말거라 우린 모두 꽃이란다. 14년 만에 온 비로 피어난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말이다. 안심하렴.”

“꽃이요? 나는 씨앗이예요. 작은 씨앗일 뿐이에요.”

씨앗이를 다독이며 모두와 같은 꽃이라고 말했지만, 씨앗이는 꽃이 되어 본적이 없어 믿기 어려웠다.

“아니란다. 너는 앞으로 강하고 억센 잎을 가질 것이란다.”

“하지만 이제야 작은 잎을 가졌을 뿐인걸요.”

“앞으로 보라색의 꽃잎도 필 것이야, 너를 믿어보렴.”

보라색 꽃잎, 씨앗이는 태어났을 때 옆에 말라죽어있던 꽃을 생각했다.

“엄마!”

“너의 이름은 놀라나 파라독사(칠레 메꽃)란다, 예쁘게 자라렴.”

“내 이름이 놀라나”

씨앗이가 이름을 되뇌었고 이 순간을 위해 견뎌왔던 본능이 깨어났다. 뿌리는 땅의 수분을 빨아들여 줄기의 물관을 통해 잎사귀로 펴 날랐다. 잎이 꽃반침과 꽃잎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씨앗이가 고개를 들어 어렸을 적 보았던 모래산을 쳐다보았다. 아니,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초록과 보랏빛이 끝없이 펼쳐진 꽃의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_3

석민정

삼십대/

문화예술인/

교습소운영

Ep. 9 제천에서 부르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2012 _ 흑역사 생성기

그 애는 내성적이었다.

올 블랙 옷을 입고 혼자 책상에 앉아 하루종일 같은 음악을 몇 시간동안 들었다.

담배를 피러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다.

말을 걸면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단답으로 대답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그 애는 꽤 묵직 시크한 사람인 체 했다.

이런 그 애의 잔잔한 마음속에서 관종의 파도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나다.

그 애는 내성적인 듯 관종이었다.

나는 그걸 일찍부터 알아봤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선 이목을 끌었다.

그 애는 노력파인 나에 비해 기본적으로 인기가 좋았다.

나는 힘써 나대는 부류라면, 그 애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였다.

나는 그런 아이 옆에 철썩 붙어 더 나대었다.

폭군이었던 나는 단체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그 애를 끌고 농활에 갔다.

나는 그 애의 옆에서 나댐의 끝을 보이며 슬슬 그 애의 관종끼를 끌어내었다.

여자 남자 모든 멤버에게 인기가 좋았던 그 애는

농활 6박7일이 반도 채 지나기 전.

20명 정도의 사람들 앞에 서 노래를 부르는 지경까지 오게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쌓여 막걸리를 마시며 듀엣곡을 불렀다.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도입부 나레이션부터 랩, 후렴까지 완벽한 듀엣이었다.

20대 초반 특유의 장난기어린 표정과 오버스러운 목소리. 부어라 마셔라했던 막걸리탓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들. 장발의 그 애와 빨간머리의 나.

훗날 이날 찍힌 동영상을 보다 이불킥을 날릴지라도 찬란한 공연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술이 얼큰해져 기분이 좋아지면
손을 잡고 힘차게 걸으며 이 노래를 부른다.
부르는 그 순간에는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놓는
우리에겐 자우림의 <스물하나 스물다섯>보다 더 애틋한 관종의 역사.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에 다신 못 올 순간들이었어
너를 보면
보고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곤 했어
행복했어 영원히 잊지못할 만큼
사랑했어 너를 보낼수없을 만큼
하지만 그만큼이 내 뜻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Ep.10 슈퍼싱글 침대가 후벼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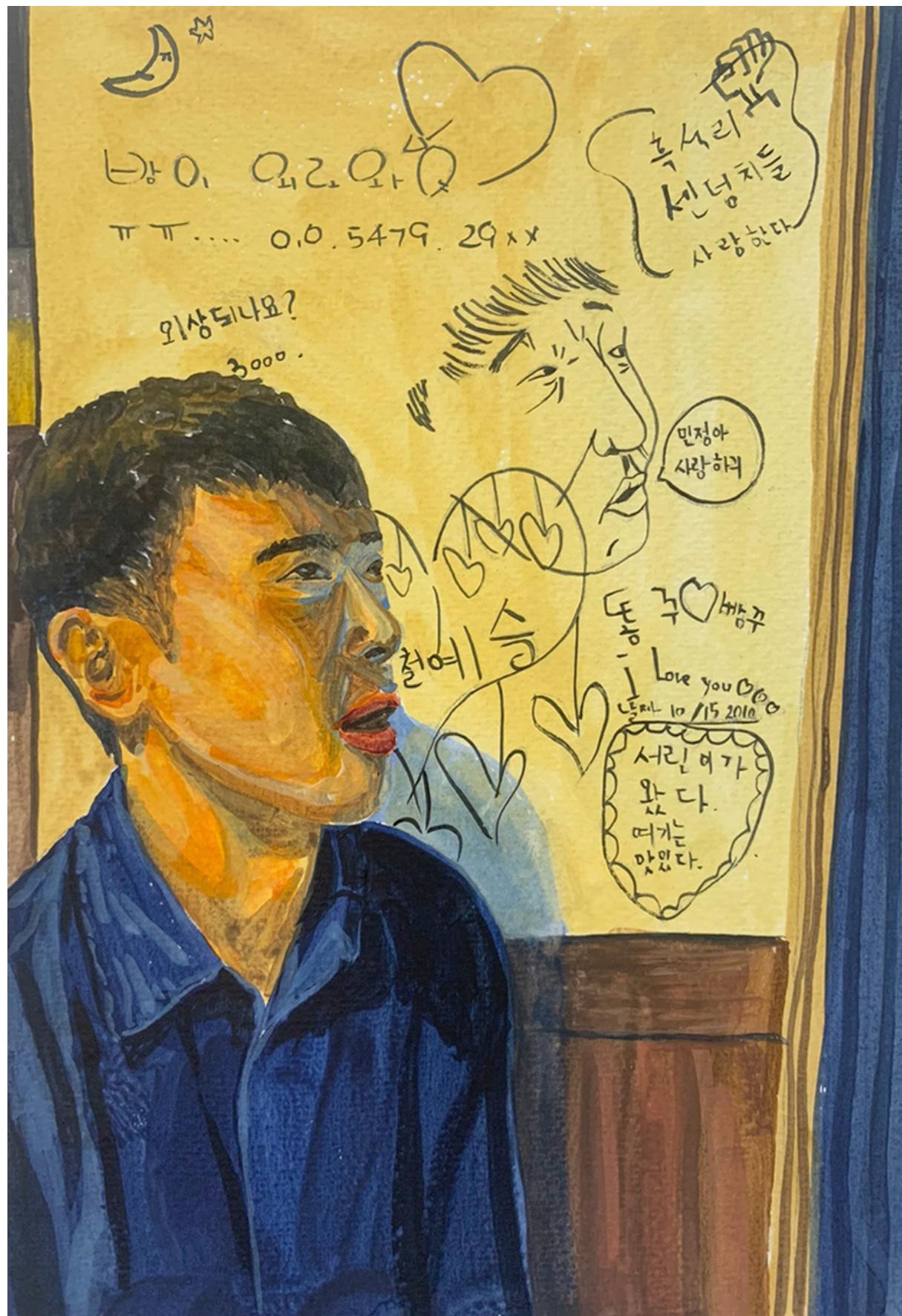
오빠 침대가 요즘 이상하더라.
너무 오래써서 스프링이 망가졌나봐. 한 쪽이 꺼졌다.
침대 하나 사야될거같애.

침대를 바꾸겠다는 그 애의 말에 배가 아릇하게 아파왔다.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 애는 알까?
나는 너와 언제 결혼 할 지 몰라
컵 하나, 프라이팬 하나도 잘 못 사.
내년에 결혼하면 좋은 거 사야지. 어떤 물건으로 꾸밀까. 그땐 돈 아끼지 말아야지.
나 혼자 신혼이라는 무지개나라를 그리며 행복회로를 돌렸던거지.

너는 내년에도 나랑 결혼 할 생각이 없구나.
네 삶에 나라는 사람이 포함되어있긴 하니?

나는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었다.
그런데 그러기엔 내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음… 그럼 사야지? 이왕 살거 좋은걸로 사.
또 싸구려 사서 버리지 말고.



Ep. 11 내일 헤어져도 오늘 팔베게는 해준다.

옆으로 누워 자는 나와 달리 그 애는 큰 대자로 잠을 자는 편이다.
같이 잠자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줄곧 그 애는 팔베게를 해주었다.
적당한 물렁살과 적당한 근육이 잘 배합되어있어
그 애의 팔베게는 꽉 편했다.
또 몸이 둔한 탓인지, 밤 새 팔이 아픈지도 잘 모르는 눈치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목덜미 밑에 있던 팔이 사라져있긴 했다만
내 기억으론 밤새 그 육중한 팔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덕에 내 목덜미는 그 애의 팔에 맞추어져있는 듯 하다.
베고 누우면 레고 블럭 맞추듯 똑 떨어지는 내 목덜미 라인과 그 아이의 팔의 두께.
내 목덜미는 그 애의 팔에 중독되었다.
기본적으로 예민한 탓에 가벼운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단번에 잠재우는 것이 이 마성의 팔베게였다.
나는 그 아이의 팔만 베면 그렇게 졸렸다.
그래서 그 애와 헤어져 있을 때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그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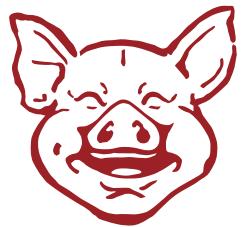
웃기지도 않지만 이 팔베게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식이었다.
잠을 자기 전 그 애가 팔을 드는 기척을 내면 나는 그 리듬에 맞추어 고개를 들었다.
내가 고개를 드는 기척을 내면 그 애는 팔을 풍차처럼 돌려 내 목덜미 아래 안착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잠이 드는 것이다.
이건 마치 파블로스의 개커플이다.

문제는 싸웠을때이다.
우리가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서로 풀리지 않은 상태로(혹은 내일 헤어짐을 약속한 상태로)
잠이 들 때에, 그 의식은 똑같이 행해진다.
그 애는 ‘내일 헤어지지만 오늘 팔베게는 해 준다’ 선심 쓰듯이 생각할 것이다.
나는 ‘내일 헤어지지만 오늘 팔은 베어준다’ 선심 쓰듯이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 목덜미와 팔을 맞대고 금세 쿨쿨 자는 것이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싸웠던 기억이 사라진다.

이것이 문제였을까?
우리의 싸움은 팔베게로 물베기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것일까



<달통 : connector> 展 김민우, 차유나 2인전_
2022. 7. 9 - 23



피그헤드랩
[www.pigheadlab.
com](http://www.pigheadlab.com)

피그헤드랩은 7월 9일(토), 김민우 차유나 작가의 2인전인 <달통 : connector> 전을 개최합니다. 두 작가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본 전시는 7월 23일(토)까지 진행되며, 오픈일인 9일 오후 6시경 리셉션 행사가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기록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하겠습니다.

pigheadlab@gmail.com
01082339033
A4, 1~2페이지 내외
혹은 그 이상
어차피 적당히 편집함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2. 07, 세번째

발행인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7월 참여 필진 : 석민정, 이규환, 오종원, 이안, 이은우, 이채연

www.pighaedlab.com